

Title: the book of Titus – Sermon 2: Sermon Notes

Scripture: Titus 1:5-9

Date preached: January 16th 2022

Scripture: Titus 1:5-9

5 For this reason I left you in Crete, that you should set in order the things that are lacking, and appoint elders in every city as I commanded you— 6 if a man is blameless, the husband of one wife, having faithful children not accused of dissipation or insubordination. 7 For a bishop must be blameless, as a steward of God, not self-willed, not quick-tempered, not given to wine, not violent, not greedy for money, 8 but hospitable, a lover of what is good, sober-minded, just, holy, self-controlled, 9 holding fast the faithful word as he has been taught, that he may be able, by sound doctrine, both to exhort and convict those who contradict.

5 그대를 크레테섬에 남겨 둔 것은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을 그대가 정리하고 또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도시마다 장로들을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7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성급하게 화내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8 오히려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자제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알고. 9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view

Let us begin by reviewing some of the things we looked at last week. We started our study of Titus by asking and answering some important foundational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we asked was who wrote the letter. I believe that the letter was written by the Apostle Paul. Although some modern scholars dispute this I find no good reason to doubt that Paul is the author. We then asked where and when the letter was written. From what we know about Paul's life we can determine that his letter to Titus was written sometime between 62-66 AD. This four year period marked the time between his first and second Roman imprisonments.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we believe he travelled to Crete with Titus and left him there. As to where Paul was when he wrote it is difficult to be certain. He may have been in Nicopolis, or travelling through Macedonia on his way to Nicopolis.

We then turned to think about the recipient of the letter. We know from the title of the letter and because he is addressed directly that the letter is sent to Titus. Titus was a Greek gentile who probably came to faith through Paul's teaching. Following his conversion he would join Paul and be a devoted and trusted co-worker.

Clearly Paul thought very highly of him. He was given several important tasks to complete and also the responsibility of establishing the church on Crete. We then turned to think about why Paul wrote to Titus. Paul and Titus had gone to the island of Crete to help establish the church. After some time together on the island Paul had gone and left Titus in charge. The letter then is sent to encourage and motivate Titus in his leadership role. It also instructs him in what he is to do and how he is to teach the people of Crete. Finally we considered why the letter still valuable to read today. Since we are still living in the church age we should desire to have strong and well run churches. To have strong churches we need to know what God expects from both church leaders and members of the church. Paul's letter then has much to teach us.

We looked last week at the beginning of Paul's letter to Titus. Letters in the ancient world typically

began with a greeting or salutation. The writer included their name, the name of the recipient and usually some kind of greeting or encouraging word. Titus includes all these elements. Today we will start to look at the main body of the letter. The letter begins with the instruction to Titus to get the church in order and to appoint good elders in every city. We should never underestimat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good leaders. Good leaders encourage, inspire, motivate and bring about change and growth in others. Paul certainly knew this and gave Titus a list of things to look for in potential leaders. Let's now look and see what Paul says.

지난 주에 살펴본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질문을 묻고 답함으로써 타이투스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묻은 첫 번째 질문은 누가 편지를 썼는지였습니다. 나는 그 편지가 사도 바울이 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만 나는 바울이 저자라는 것을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 편지를 언제 어디서 썼는지 물었습니다. 바울의 생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서 우리는 그가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주후 62-66년 사이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년의 기간은 그의 첫 번째 로마 투옥과 두 번째 로마 투옥 사이의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디도와 함께 그레테로 여행을 가서 그곳에 두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니코폴리스에 있거나 니코폴리스로 가는 길에 마케도니아를 거쳐 여행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편지의 제목에서 그리고 그가 직접적으로 주소를 받았기 때문에 그 편지가 티투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압니다. 디도는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 이방인이었습니다. 개종한 후 그는 바울과 합류하여 헌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에게는 완료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임무와 그레테에 교회를 세우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우러 그레테 섬으로 갔다. 바울은 그 섬에 얼마 동안 함께 있다가 가서 디도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 편지는 Titus의 리더십 역할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보내집니다. 또한 그가 해야 할 일과 그레테 사람들을 가르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편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잘 운영되는 교회를 원해야 합니다. 강한 교회를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세계의 편지는 일반적으로 인사나 경례로 시작되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이름, 받는 사람의 이름, 일반적으로 일종의 인사나 격려의 말을 포함했습니다. Titus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는 편지의 본문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편지는 디도에게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각 도시에 좋은 장로를 세우라는 지시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리더의 가치와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리더는 격려하고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알았고 디도에게 잠재적인 지도자들에게서 찾아야 할 것들의 목록을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5 For this reason I left you in Crete, that you should set in order the things that are lacking, and appoint elders in every city as I commanded you—

As I said in the introduction Paul and Titus were a team. Following Paul's release from prison they

travelled to Crete together and worked preaching, teaching and evangelizing. We have no biblical record of this trip and have no idea how long it lasted. We can infer from the need for church leadership that Paul's evangelism had been effective. There were now new believers ready to form churches and grow in their faith. It seems that at this point Paul left Crete leaving Titus behind. Again we do not know the circumstances behind this. Was Paul called away to attend to other business? Did the Lord direct him elsewhere? Whatever the case we should not think of it as Paul abandoning Titus, he trusted him to do the necessary work. He knew him to be a very capable young man who would faithfully serve as Paul's apostolic representative. We see a similar thing happen today when a company sends a representative to a new location. They are not sent to decide or determine by themselves what happens but rather to put in place the plans or directives of the company that sent them.

So what was Titus to do? He was given the very important task of setting in order things that were lacking. The churches in Crete were lacking the vital ingredient that would enable them to effectively serve the kingdom; good leaders. Normally it was one of Paul's tasks to appoint elders in the new churches he helped establish. In this instance though he had had to leave before this could take place. Therefore it fell to Titus to appoint elders. He was not there to be a church pastor but rather to appoint the men who would pastor the church.

It's worth just pausing here to say a few words about leadership within the church. Today there are many leadership structures within the church. It seems as if almost every denomination has its own unique hierarchical leadership model.

I grew up in the Church of England which has a multi-layered hierarchical structure similar in some ways to the Roman Catholic church. We see a very different model presented in the bible.

The model of church organisation presented to us in the New Testament is actually very simple. It consists of just two offices. At the top level we have **elders**, **bishops** and **pastors**. These three terms are used interchangeably in scripture but all refer to this higher office. Below them we have the office of deacon. A deacon simply refers to one who serves the church. Its very simple and very efficient. We should also note that the bible always talks about elders in the plural. There is never the notion of a single elder leading a church. Having more than one leader helps create accountability and better ensures that the church follows sound teaching. Let us then look at the qualifications Titus was to look for in potential pastors.

서론에서 말했듯이 Paul 과 Titus 는 한 팀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들은 함께 그레데로 가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행에 대한 성경 기록이 없으며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전도가 효과가 있었음을 교회 리더십의 필요성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제 새 신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고 그레데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이면의 상황을 모릅니다. 바울은 다른 일에 참석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어떤 경우이든 바울이 디도를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는 바울이 필요한 일을 하도록 믿었습니다. 그는 그가 바울의 사도적 대표자로 충실하게 봉사할 매우 유능한 청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회사에서 담당자를 새 위치로 보낼 때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낸 회사의 계획이나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티투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는 부족한 것을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은 왕국을 효과적으

로 섬길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요소가 부족했습니다. 좋은 지도자. 일반적으로 바울이 세우는 일을 도운 새 교회에 장로를 임명하는 것은 바울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떠나야 했다. 그러므로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은 디도에 넘겨졌다. 그는 교회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목회할 사람들을 임명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교회 내 리더십에 대해 몇 마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리더십 구조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단마다 고유한 계층적 리더십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유사한 다층적 계층 구조를 가진 영국 성공회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매우 다른 모델을 봅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교회 조직의 모델은 실제로 매우 간단합니다. 2 개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 수준에는 장로, 감독, 목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경전에서 서로 바뀌어 사용되지만 모두 이 더 높은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 아래에는 집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집사는 단순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우 간단하고 매우 효율적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이 항상 장로에 대해 복수형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 명의 장로가 교회를 인도한다는 개념은 결코 없습니다. 한 명 이상의 지도자를 두는 것은 책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회가 건전한 가르침을 따르도록 더 잘 보장합니다. 그러면 티투스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찾는 자질을 살펴보자.

6 if a man is blameless, the husband of one wife, having faithful children not accused of dissipation or insubordination.

What do you consider to be important in your pastor? Fashions and tastes have changed over the centuries. In the past a pastors qualifications or learning was often valued more than their charisma or personality in the pulpit. Congregations liked learned men and were willing to put up with their sometimes dry and long-winded sermons. Now perhaps the swing is more towards charismatic or energetic personality pastors. Some of the famous pastors we see today are incredibly charismatic. They tell funny story tellers like comedians and are usually confident public speakers. People in modern churches sadly often prefer entertainment over sound biblical content. Let us see what God considers important in a church leader.

The first thing Paul tells us is that the church leader is to be a **man**. I know that this is a controversial statement for many Christians today. I also know that many denominations have now rejected the clear teaching of the bible on this issue. When we look closely at what the Holy Spirit inspires Paul to write in both 1st Timothy and Titus it is clear. The office of elder, bishop and pastor is for men only. If you feel offended by this then I urge you to read carefully the passages from 1st Timothy and Titus and see for yourself. The terms "husband" not "wife" and "man" not "woman" are used. We also observe that masculine pronouns are the only ones employed. Please note this is not saying that women are inferior to men, or that they do not have an important place in the church. It's just saying that God does not want them to take the role of leadership in the church.

A pastor we are also told is to be **blameless** (*anegklētos*). This word literally means "nothing to take hold upon." There must be nothing in this potential leaders life that others could take hold of and attack him for. So for example if the man in question was known to be a heavy drinker, then others could come forward and accuse him of being a drunk. The church does not need such men in leadership positions. It needs men who live righteous lives.

Next he is to be **the husband of one wife**. This does not mean that unmarried men are excluded from being pastors. Neither does it mean that a man whose wife has died is unqualified, or that such a person cannot remarry and still be a leader. Some even take it to mean that a man who is biblically

divorced is also eligible to lead. What I think Paul is really getting at is that the man is to be focused on one woman alone; his wife. Naturally this excludes men with a roving eye or even worse a roving hand!

The next issue Paul addresses is that of children. We can tell a lot about a person by looking at their children. We, perhaps sometimes unfairly think badly behaved or unruly children must have weak or over indulgent parents. This is especially true for fathers. Again it is an unpopular thing to say today but God placed fathers as the leader in the home. They are tasked with setting the direction and guiding the family.

They should lead their families in a way that is pleasing and honouring to God. Naturally this will mean that their children are sound and faithful Christians. After all if a father cannot lead and guide his own children in the Christian faith how can he guide strangers.

A potential leader's children should be well behaved and obedient. No one ought be able to look at this person's children and accuse them of being wild, rebellious and disobedient.

The main take-away here is that if a man is to lead and guide a church well he must be able to lead and guide his family well. What else is important.

목회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션과 취향은 수세기에 걸쳐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목사의 자격이나 학식이 강단에서 카리스마나 인격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회중은 학식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으며 때때로 건조하고 장황한 설교를 기꺼이 참았습니다. 이제 그 스윙은 카리스마가 넘치거나 활기찬 성격의 목회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유명한 목사들 중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들은 코미디언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일반적으로 자신 있는 대중 연설가입니다. 현대 교회의 사람들은 슬프게도 종종 건전한 성경 내용보다 오락을 선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봅시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술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또한 많은 교파들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거부했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신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장로, 감독, 목사의 직분은 남자들만의 직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다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구절을 주의 깊게 읽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아닌 '남편'과 '여자'가 아닌 '남성'이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는 또한 남성 대명사가 사용된 유일한 대명사임을 관찰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거나 그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목사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anegklētos).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잡을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잠재적인 지도자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문제의 남자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를 술 취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 위치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혼 남성이 목회자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내가 죽은 남자가 자격이 없다거나 그런 사람이 재혼할 수 없고 여전히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이혼한 남자도 인도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에 Paul 이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남자가 한 여자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인. 당연히 이것은 방랑하는 눈을 가진 남자 또는 방황하는 손을 가진 남

자를 제외합니다! 바울이 다음으로 언급하는 문제는 어린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때때로 부당하게 행동하거나 제멋대로인 자녀에게 약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부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아버지에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에는 인기가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를 가정의 지도자로 두셨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설정하고 가족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가족을 인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건전하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독교 신앙으로 자기 자녀를 인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낯선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잠재적인 지도자의 자녀는 예의 바르고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자녀들을 보고 그들이 거칠고 반항적이며 불순종적이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자가 교회를 잘 이끌고 인도하려면 가족을 잘 이끌고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합니다.

7 For a bishop must be blameless, as a steward of God, not self-willed, not quick-tempered, not given to wine, not violent, not greedy for money,

As I said when I spoke about the New Testament offices we see that bishop, elder and pastor are used interchangeably. So when you read “**bishop**” here it simply refers to the upper level of church leadership. A person desiring such a position is to be **blameless** or beyond reproach. This is because they are working as **God's steward**. The term “steward” here is important. A steward cares for, or manages something on behalf of someone else. So in church terms a pastor cares for the people on behalf of God. The church never belongs to the pastor or elder, it always belongs to God. The steward then represents or serves as the public face of the church. For this reason they are not to be **self-willed**. This means that an elder is not to be selfish, stubborn, arrogant, overbearing or proud. You should be able to respect and admire your pastor but he should never be seen or perceived as a tyrant or dictator!

An elder should also not be **quick tempered**. A good leader should be even mannered and patient. They should not be easily irritated or angered. They also should not be **given to wine**. This means that they do not drink more than is acceptable or proper. Or perhaps more plainly that they can control their drinking, and not that it controls them. It does not mean that pastors should never drink. But it does imply that pastors think carefully about when, where and how much they drink.

Paul also tells us that elders are not to be **violent** (*plēktēs*). The Greek word used here literally refers to a “striker” or someone “who throws a punch.” Naturally aggressive or violent men have no place in the pulpit. Also an elder should be careful with what they say. We can be violent or aggressive in either what we say or how we say it.

Finally here Paul reminds us that elders should not be **greedy for money**. Sadly it is very easy today to find television evangelists or pastors who seem obsessed with greed and making money. Men who live in luxury homes and have their own private jets. So let me say it very clearly. Serving God as a faithful servant is never about making money.

제가 신약성경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했듯이 감독, 장로, 목사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감독”을 읽을 때 그것은 단순히 상위 수준의 교회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지위를 원하는 사람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돌보거나 관리합니다. 따라서 교회 용어로 목사는 하나

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목사나 장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교회의 공개적인 얼굴을 대표하거나 봉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기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장로가 이기적이고 완고하고 거만하거나 거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사를 존경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하지만 결코 폭군이나 독재자로 보이거나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도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예의 바르고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포도주에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수용 가능하거나 적절한 것보다 더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음주가 술을 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목회자들이 술을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들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또한 장로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plēktēs).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스트라이커” 또는 “편치를 던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선천적으로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남성은 강단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장로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나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바울은 장로들이 돈을 욕심내지 말 것을 상기시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에는 탐욕과 돈벌이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텔레비전 전도사나 목사를 찾기가 매우 쉽습니다. 호화로운 집에 살고 개인 제트기를 소유한 남성. 그러니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8 but hospitable, a lover of what is good, sober-minded, just, holy, self-controlled,

Here Paul provides us with a list of the kinds of qualities needed in an elder. They should be **hospitable**. In the ancient world there were very few inns or places to stay. Therefore travellers relied upon the hospitality of people as they travelled. This was certainly true for Christians as they moved around. Elders should be ready to welcome and care for such people. It also goes beyond this however, elders ought to be welcoming and generous to others in the community. If they are mean or unwelcoming it is a poor representation of Christianity. They also to be **lovers of what is good**. They should not enjoy or participate in the evil or wicked things of this world.

They are to be **sober minded**. This means that an elder is to be a sensible person, one who can think deeply and clearly about things. This does not mean that a leader must always be sombre or solemn. There are always times for laughter and being light-hearted. However a good leader knows when and where this is right and never cheapens the gospel message by being foolish or silly.

They should be **just, holy and self-controlled**. The person who leads the church should be fair minded and just with other people. They also should act in the right way towards God. Finally they must be **self-controlled**. An elder must be in full command of themselves.

여기에서 바울은 장로에게 필요한 자질의 종류에 대한 목록을 제공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숙박 시설이나 숙박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들은 여행하면서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닐 때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돌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것을 넘어서서, 장로들은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관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비열하거나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좋은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악하거나 사악한 것들을 즐기거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장로가 지혜로운 사람, 사물에 대해 깊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

도자가 항상 침울하거나 엄숙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웃을 때가 있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는 이것이 언제 어디서 옳다는 것을 알고 결코 어리석거나 어리석음으로 복음 메시지를 값싸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의롭고 거룩하며 자제해야 합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공평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공평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제해야 합니다. 장로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해야 합니다.

9 holding fast the faithful word as he has been taught, that he may be able, by sound doctrine, both to exhort and convict those who contradict.

We end our section of Paul's letter today with an explanation of what an elder is supposed to do. Today people are elevated to the status of an elder for many unbiblical reasons. Perhaps they have attended the church for many years. Maybe they have made a generous cash donation. Perhaps they are powerful influential people in the local community. Maybe they get on well with the pastor and will serve as "yes" men on the elder team. These reasons are all unbiblical. So what is an elder to do?

An elder is to be assured and confident in God's Word so that he can teach it to others. He is first to be fully sure and convinced of it himself. This understanding will have come through careful study and training. We should at all times be training and prepar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When he is fully convinced of the truths of God's Word then he will be able to teach and encourage others. He will also be able to correct people when they are wrong. Next time Paul will tell us some of what is expected from an elder in the church.

오늘 우리는 장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으로 바울 서신의 섹션을 마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비성경적인 이유로 장로의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교회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관대한 현금 기부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목사님과 잘 지내고 장로 팀에서 "예"맨으로 봉사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두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장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장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그것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주의 깊은 연구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완전히 확신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틀렸을 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바울은 교회의 장로에게 기대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Paul was writing to advise Titus on what to look for in church leaders. We need to choose our leaders very carefully. The list of qualifications we have studied today are not given a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In order to find qualified men we need to follow God's commands in this area. Only when we apply God's standards can we be assured of getting the people He wants to lead His church.

But of course all believers are called to high standards. We all in one way or another have a leadership role in life. In the home, at work in the church people look at us and make assessments of our abilities and character. Even though Paul was writing about elders the list of qualifications apply in some degree to all members of the church. Let us then consider them briefly. As we do I want you to apply them to yourself. How well do you measure up?

- Blameless – If people looked at you and your life would there be anything that they could hold against you? Hopefully there is nothing in your life that people could accuse you of.
- Faithful to your spouse – Are you loyal and faithful to your spouse? Is your focus entirely and appropriately on them and them alone?
- Are your children faithful? – Have you raised good Christian children? Have you nurtured them in the faith and encouraged them in their Christian walk? Or are they wild and rebellious?
- What about your character? Do you struggle with being selfish, arrogant, prideful or overbearing? Are you someone who gets angry quickly? Do you struggle to control your tongue?
- What about your self-control? Are you someone who is easily controlled or mastered by things? It may be a chemical dependence like alcohol, food or drugs but also things less obvious like your cell phone or an addiction to social media. If you find it very difficult or impossible to put down your phone then who is in control? You or it?
- What about greed or covetousness? Are you consumed with the desire for more? Do you believe that life would be better, happier or more fulfilling if only you had more money, a bigger house or nicer car?
- What about hospitality? Are you open and welcoming to others? Are you ready and willing to host others and provide for others needs?
- Are you sober-minded and serious about your faith? Do you take the time to deeply think about and consider things? Do you make it a habit to read God's Word and pray often?
- Finally are you focused on what is good and honouring to God? This world is full of evil and darkness. How easy it is for us to be swallowed up in the darkness that surrounds us. Our focus as followers of Christ must be on what is good and pleasing to God.

When we think about these things we must honestly confess that we are all lacking. None of us meets God's perfect standards. We are all deficient in one or many areas. We all have much work to be done.

Of course God knows our failings. He knows that the sin in our lives keeps us from perfection. He knows that no matter how hard we try we can never do enough to save ourselves. That was why He sent us His perfect son who would take our sins upon Himself. He died bearing our sins so that God could impute His righteousness to us. That God would look at us and not see our wretched failings but instead see Christ's perfection. Lord I thank you for saving a wretch like me. Enable me to live a life that honours you and blesses others.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조언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자격 목록은 지침이나 권장 사항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만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신자는 높은 표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인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능력과 성품을 평가합니다. 바울이 장로들에 대해 썼지만 자격 목록은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어느 정도 적용됩니다. 그런 다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이 그것들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잘 측정합니까?

- Blameless –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삶을 본다면 그들이 당신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할 수 있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 배우자에게 충실하다 –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충실합니까? 그들과 그들에게만 전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 자녀는 충실합니까? – 좋은 기독교 자녀를 키웠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도록 격려했습니까? 아니면 거칠고 반항적입니까?

■ 당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거만하고, 교만하거나 거만해져서 고군분투합니까? 당신은 화를 빨리 내는 사람입니까? 혀를 제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까?

■ 자제력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사물에 쉽게 통제되거나 지배되는 사람입니까? 알코올, 음식 또는 약물과 같은 화학적 의존일 수도 있지만 휴대전화나 소셜 미디어 중독과 같이 덜 분명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누가 제어합니까? 당신 또는 그것?

■ 탐욕이나 탐욕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만 있다면 삶이 더 낫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믿습니까?

■ 환대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환영합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을 호스트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당신은 당신의 신앙에 대해 냉철하고 진지합니까? 당신은 시간을 가지고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까?

■ 마지막으로 당신은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에 삼켜지기가 얼마나 쉬운가.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의 초점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또는 많은 영역에서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죄가 완전함을 방해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완전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비참한 결점을 보지 않으시고 대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 같은 불쌍한 자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